

팔마 리지나의 전설

PALMA RIGGINA

오르티지아에서 온 동화



팔마 리지나의 전설

1. 어둠 속의 씨앗

오르티지아에는 늘
그늘진 곳이 있었어요.



난 아레투스야.
이곳의 물을
지키지.

어느 날, 제비가 바다에서 씨앗 하나를
물고 왔어요.



두 돌 사이에 떨어진 씨앗은... 귀를 기울였어요.



작은 씨앗아,
힘내!

씨앗은 자신이 아는 단 하나의
방법으로 답했어요.



자라날 거야!

하지만 빛은 지붕 너머 멀리 있었어요.



길을 찾아야
해.

그래서 야자나무는 몸을 굽히고 계속 길을 찾았어요.



천천히... 넌
할 수 있어!

팔마 리지나의 전설

2 · 돌들의 목소리

뜰은 갈라진 틈과 물기, 메아리로
조용히 말했어요.

돌마다
이야기가 있지.

약속과 이별, 다시 만난 기억이 벽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야자나무는 밤마다 지붕 사이로 난 길을 찾았어요.

다시 해 볼 거야.

돌들은 야자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지 마!

가 봐!

찾아봐!

조심해!

그들은 친구가 되어 주었고, 뜰에는 희망이
자랐어요.

내 길을
찾으려고 몸을
굽히는 거야.

팔마 리지나의 전설

3 · 헬리오스의 선물

어느 아침, 태양 헬리오스가
오르티지아 위를 지나갔어요.

이 섬에는 이야기가
참 많구나!

그들 속에서 빛을 찾는 야자나무가
보였어요.

작고 용감한 나무야,
널 보았단다.

헬리오스는 나무의 끈기와 용기에 감탄했어요.

빛은 자신을 찾는
이를 사랑하지.

그는 작은 약속 같은 한 줄기 햇살을 선물했어요.

뜰 전체를 밝히진 못해도, 계속
자라기에는 충분했어요.

왔구나!

햇살은 매일 몇 시간씩, 짧지만 어김없이
돌아왔어요.

내일도
기다릴게.

팔마 리지나의 전설

4 · 앞으로 된 종탑

야자나무는 따스한 빛을 느끼고
다시 용기를 냈어요.

이제 어디로
갈지 알겠어!

즐기는 기운 채였지만, 새로 자란
부분은 하늘로 뻗었어요.

이제 빛을 찾는 일이 두렵지 않았어요.

빛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거야!

야자나무는 앞으로 된 종탑처럼 높이 솟았어요.

오르티지아 땅속에서 아레투사가 잎 스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소리를
알아...

샘물은 소망의 소리를 알아듣는답니다.

제 길을 찾은
소망의
소리구나.

팔마 리지나의 전설

5 · 딸의 여왕

뜰에는 목소리와 약속, 미소가
모여들었어요.

다시 만날 때마다 소중한 이야기가
생겼어요.

야자나무는 그 목소리를 모아 바람에게 맡겼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은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데려갈게.

Ccà si fa
cuttigghiu!

정겨운 수다가 오가는 뜰에서,
야자나무는 여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름이 생겼어요.

**Cuttigghiu
dâ Palma Riggina**

‘야자나무 여왕의 딸’이라는 뜻이에요.

시칠리아 말로 ‘쿠티기우’는 딸이자 수다예요.

팔마 리지나의 전설

6 · 목소리들이 떠난 날

사람들은 어느새 귀 기울이기를
멈췄어요. 조금씩, 조금씩.



의자는 비어 가고, 창문도 점점 열리지
않았어요.



더 넓은 길, 더 높은 집, 빛이 잘 드는 곳을 찾아 떠났어요.



하지만 오래된 곳에는 시간과 돌봄, 귀 기울임이 필요해요.



골목은 조용해졌어요. 수다는
속삭임이 되고, 추억이 되었죠.



그래도 야자나무는 남았어요.



팔마 리지나의 전설

7·기나긴 기다림

발소리 없이 비가 내리고, 이름 없는 계절이 흘러갔어요.

웃음 없는 여름에도 야자나무는 뜰을 지켰어요.

헬리오스는 언제나처럼 매일 어김없이 돌아왔어요.

나 여기 있어.

하지만 반겨 주는 눈길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우리 이야기는 아직 여기 있어.

야자나무는 비밀 하나를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 다시
바라보면, 아무것도
사라진 게 아니야.

야자나무는 사람들을 기다렸어요. 해는
늘 돌아오고 있었으니까요.

팔마 리지나의 전설

8 · 칼레이도가 찾아오다

여러 해가 지난 뒤, 건축사 사무소 칼레이도가 찾아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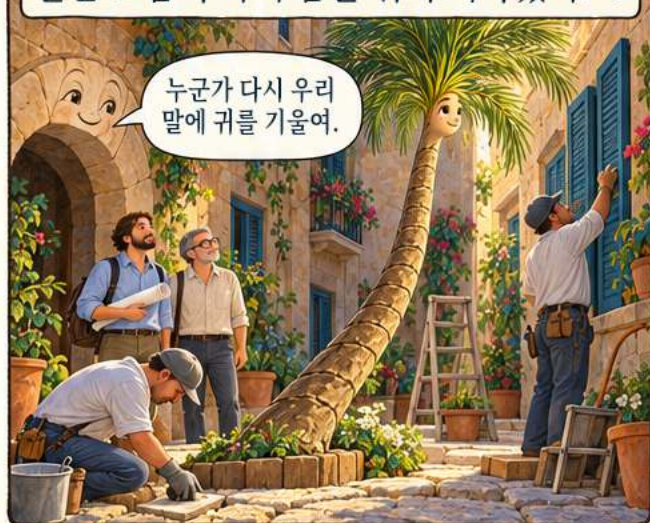
무언가를 바꾸기 전에, 먼저 이곳을 알아갔어요.



돌과 야자나무를 아끼며, 이곳을 되살릴 계획을 세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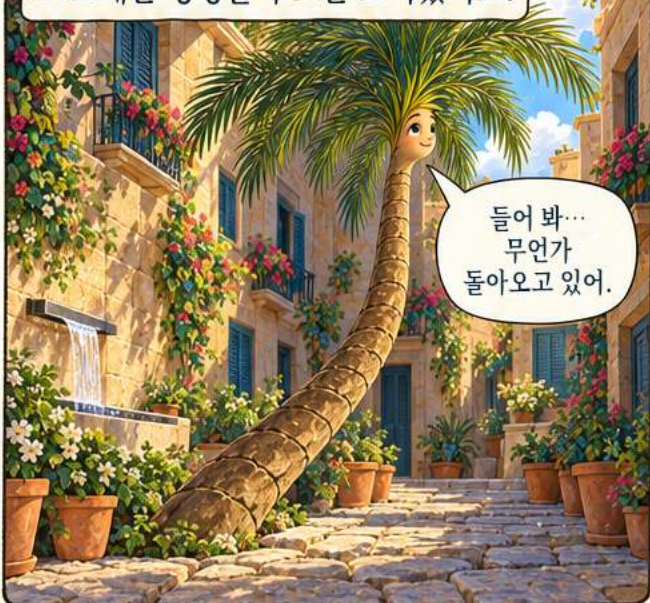
뜯은 조금씩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칼레이도는 노래하는 물, 작은 폭포를 들여왔어요.



그 노래는 생명을 부르는 소리였어요.



팔마 리지나의 전설

9. 오아시스가 된 뜰

돌 위로 물이 흘렀어요. 그들은
오아시스가 되었죠.



물과 함께 발소리, 눈길,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으러 온 손님처럼 들어섰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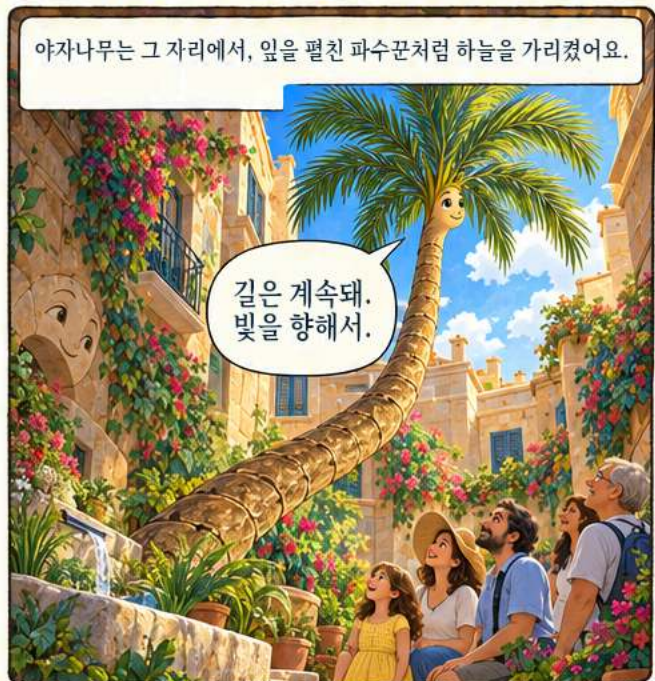
벽들은 삶이 돌아오는 소리를 알아들었어요.



초록이 자라났어요. 지중해도 자신이
꿈이란 걸 기억한 듯했죠.



야자나무는 그 자리에서, 잎을 펼친 파수꾼처럼 하늘을 가리켰어요.



팔마 리지나의 전설

10 · 손님마다 하나의 이야기

오늘도 조용히 서 있으면, 네 가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기억해.

헬리오스는 매일 잠깐씩, 어김없이 돌아와요.

찾아봐.

물은 돌 사이에서 노래해요.

천천히.

야자나무는 하늘을 향해 잎을 들어요.

빛나렴.

뜰도 돌의 미소를 지으며 속삭여요.

Cu' veni cca,
porta 'na storia.
Cu' si nni va,
nni lassa n'autra.

이곳에 오는 이는 이야기를 가져오고,
떠나는 이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남겨요.



팔마 리지나의 전설 PALMA RIGGINA

오르티지아의 물과 기억에서 태어난 동화입니다. 말하는
돌과 신비로운 사건들은 전설 속 이야기입니다.

만든 이

기획 · 글 · 만화 각색
편집 및 제작

Cool Dreams® Ortigia

그림은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해 제작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낱말

아레투사: 오르티지아를 상징하는 요정이자 샘.

오르티지아: 시라쿠사의 옛 중심부를 품은 섬.

헬리오스: 그리스 신화 속 태양신.

쿠티기우: 시칠리아 말로 뜰과 수다. 여기서는 이야기가 되는
정겨운 목소리들.

칼레이도: 이 건물을 복원하고 새롭게 꾸민 건축사 사무소.

디지털판 · 2026년 9월
© 2026 Cool Dreams® Ortigia
모든 권리 보유.

